

'장타왕' 모리스 알렌 354.4야드 '괴력쇼'

(역대 최장거리 483야드 기록 보유)



모리스 알렌이 25일 경북 구미 소재 골프존카운티 선산 18번 홀(파5)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펼쳐진 스페셜 이벤트 '볼빅 롱 드라이브 챌린지'에 참가해 화려한 드라이버 샷을 구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 KPGA

8강서 354.4야드 샷... 갤러리 탄성 결승선 318.8야드, 김홍택 꺾고 우승 알렌 "우승 기뻐...본 대회서도 최선"

하늘을 뚫을 듯한 드라이버 샷은 골프의 묘미다. 세계최고의 장타자들이 '볼빅(Volvik) 롱 드라이브 챌린지'에서 골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019 DGB금융그룹 볼빅 대구경북오픈(총상금 5억 원·우승상금 1억 원)' 개막에 앞서 25일 경북 구미 소재 골프존카운티 선산 18번 홀(파5)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는 스페셜 이벤트인 '볼빅 롱 드라이브 챌린지'가 열렸다.

이번 이벤트에 참가한 8명 중 가장 주목할만한 선수는 미국의 모리스 알렌(38·볼빅)이었다. 그는 2018년 월드 롱 드라이브 투어(WLD투어)의 '월드 롱 드라이브 챔피언십' 우승자이자 2017년 WLD투어 '마일 하이 쇼 다운'에서 483야드 기록, 역대 WLD투어 최장거리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우간다투어 '우간다오픈' 챔피언 미국의 조슈아 실(29·볼빅)도 참가했다.

또 김홍택(26·볼빅), 김민수(29·볼빅)를 비롯해 함정우(25), 2015년 나운철

(27·뉴질랜드), 강윤석(33), 이재진(23) 등 KPGA 코리안투어를 대표하는 주요 선수들이 대구·경북 지역의 골프 팬들에게 화려한 장타쇼를 선보였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펼쳐진 대회에서 우승은 알렌에게 돌아갔다. 알렌은 김홍택과의 결승에서 318.8야드를 기록, 315.5야드의 드라이버샷을 날린 김홍택을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알렌은 앞서 8강에서는 이번 대회 최고 기록인 354.4야드의 장타를 선보이기도 했다.

500만 원의 우승 상금을 차지한 알렌은 "우승을 해서 기쁘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 볼빅과 DGB금융그룹, KPGA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본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력이 뛰어난 KPGA 코리안투어 선수들 그리고 조슈아 실과 함께 경기를 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준우승을 거둔 김홍택은 상금 200만 원을 획득했고, 3위~8위 선수들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한편 26일부터 개막하는 '2019 DGB금융그룹 Volvik대구경북오픈'은 29일 까지 나흘간 골프존카운티 선산(파72·7104야드)에서 펼쳐진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바흐 위원장 만난 문재인 대통령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 논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5일(한국시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 양자 회담장에서 바흐 위원장을 접견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유치, 2020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 IOC와의 실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뉴욕 | 뉴시스

내가 왜 떴게?

명품이 막 걸어 다녀?



●방탄 뷔, 인간명품 재 :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방탄소년단 뷔의 명품 브랜드 모델과 관련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는 소식. 무대, 화보, 뮤직 비디오 등에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의 제품을 독보적인 스타일로 소화해낸 뷔가 명품 브랜드 모델로 활동해주시기를 바란다. 전 세계 팬들의 열화같은 요청을 다룬 보도들이다. 실제로 '걸어 다니는 구찌', '구찌 프린트'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뷔'하면 구찌. '인간명품'이라고까지 불리다니 이쯤 되면 '인간문화재' 아닌 '인간명품재'네.

마포대교는 무너졌나?



●김응수, 광철용 : "이게 왜 떴지?". 요즘 유튜브에서 광철용 패러디가 난리다. 광철용은 영화 '타짜'에서 김응수가 맡았던 조폭두목. 그런데 뒤늦게 광철용이 등장하는 장면과 대사들을 패러디한 영상, 밧글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화란아, 나도 순정이 있다", "또 지면 년 번사체가 된다",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등이 변주되어 온라인을 도배 중이다. 그 중 압권은 "마포대교는 무너졌나?". 근데 이 명대사는 애드립이었다는 데 사실인가요?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일본 언론도 반대하는 '육일기 올림픽'

"군국주의 상징...평화올림픽에 배치 해외 올림픽엔 금지, 다른 잣대 안돼"

럭비월드컵 티켓에 교묘히 문양 이용 서경덕 교수 "도쿄 곳곳 육일기 난무"

일부 일본 언론이 2020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서 전반기의 상징인 육일기를 사용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도쿄신문은 25일 '올림픽과 육일기, 반입 허용을 재고하자'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육일기사용은 주변국들의 강한 반발을 낳을 수 있다"면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육일기 반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일기 문양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을 올

림픽 메달에 도입해 논란을 일으킨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육일기 사용에 대한 최근 한국 매체의 질의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일본 정부 역시 반입을 강제로 막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육일기 디자인은 대어기(大漁旗·풍어를 알리는 깃발) 등 이미 민간에서 널리 사용돼 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선전이 될 수 없어 올림픽 응원전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도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일본 매체들은 조직위와 정부 의지에 공감하고 있고, 극우매체인 산케이에는 한발 더 나아가 "육일기 사용을 (주변국들에)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치밀한 정부 차원의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쿄신문의 논조는 달랐다. "육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하켄 크로이츠 문양처럼 법으로 이용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자위함기로 사용되는데 대어기에 사용한 깃발은 태양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 정도로 민간에 보급됐다는 정부 설명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지적했다. "육일기는 과거 일본군기로 사용됐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군국주의와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되고 있다"면서 "인간의 존엄성, 인류 평화를 목적으로 한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온화한 환경을 조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실제 사례도 들었다.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AFC)이 가와사키 프론타레 응원단이 경기장에 내건 육일기에 대해 '공격·도발적인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깃발'이라며 벌금 제재를 가했고,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주 중국 일본대사관이 일본 관중에게

"경기장 내 육일기 반입 금지"를 촉구한 내용을 소개했다. 해외 올림픽과 자국 대회에서 들이대는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냉정한 해석이었다.

그러나 '육일기 전쟁'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일 일본에서 개막한 2019 럭비월드컵에서 육일기 문양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래 전부터 육일기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렸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티켓 디자인에 육일기 문양이 교묘히 이용됐고, 육일기 머리띠를 매고 응원하는 관중도 많다. 도쿄 곳곳에 육일기 홍보물도 난무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아일랜드 통신사의 응원 영상과 럭비월드컵 중계를 알리는 영국 펍 등에서 육일기 영상과 안내판이 확인되고 있다. 서 교수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 국제적비연맹에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국내 팬들, MAMA 나고야돔 개최에 거센 반발

"H 경제보복 불구 문화교류는 계속" CJ E&M 일본서만 시상식 열기로 팬들 "돈벌이 위해 서용 고착됨 배제"

CJ E&M이 자사 케이블채널 엠넷의 연말 음악시상식 'MAMA'(Mnet Asian Music Awards)를 12월4일 일본 나고야돔에서 열기로 하면서 케이팝 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MAMA는 케이팝 가수를 주축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콘서트형 시상식. 엑소,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블랙핑크 등 케이팝 가수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은 이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시상식 개최지에 관심을 높여왔다. 그동안 마카오(2010년), 싱가포르(2011년), 홍콩(2012~2016년)을 거쳐 2017년 베트남·일본·홍콩 3개국에서 동시 무대를 펼쳤고 지난해에는 홍콩·일본·서울

에서 공연했다.

하지만 CJ E&M이 올해 시상식을 일본에서만 열기로 하자 '국내 팬들을 찬밥 취급하고, 케이팝 가수를 돈벌기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CJ E&M 측은 당초 홍콩을 염두에 뒀지만 송환법 반대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일본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경색됐지만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치외교 이슈와 별개로 민간 문화교류는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케이팝 가수들이 여전히 일본에서

팬미팅과 콘서트로 굳건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팬들은 이를 전혀 다른 사안으로 보고 있다. MAMA가 "출연료도 받지 않는 시상식에서 케이팝 가수들의 스타파워를 내세워 돈벌이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서울 고척스카이돔(2만5000명)에서 공연을 펼치기 충분했는데 이를 배제한 것에 대한 불만도 크다. 4만5000명이 입장할 수 있는 나고야돔에 비하면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해외 팬들까지 유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며 CJ E&M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yj@donga.com